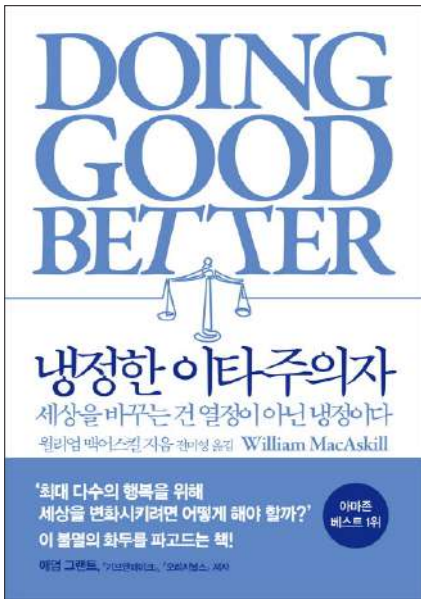


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어스킬 저

최진용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제목 Doing Good Better
저자 William MacAskill

국내외 비영리 구호 단체에 기부를 할 때 기부금에 사용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국제협력사업의 무상원조에 대하여 그 용도가 효과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다. 공정무역이 정말 아프리카의 빈곤한 농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기도 하다. 더욱 나아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적정기술과 적정기술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면 이 책 읽기를 권하고 싶다.

“냉정한 이타주의자”는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 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 옥스퍼드대학교 철학과 부교수이자 비영리 단체 “기빙 왓 위캔 Giving What We Can”과 “8만 시간 80,000 hours”의 공동설립자인 윌리엄 맥어스킬 (William MacAskill) 이 집필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현장의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어디에 누구를 도울 지를 결정해야 합리적이고 실패하지 않으며 비용효율적인 구호를 할 수 있음을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한다. 국내외 국제구호단체들이 ‘빈곤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이때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관리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에 기부금이 얼마나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그

구호단체 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선택하여 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제구호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본인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이 훨씬 기부의 효과가 크다는 것도 차근차근 설명한다. 특히 “재해구호에 기부하면 안 되는 이유”, “차라리 노동착취 공장 제품을 사라” 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상식을 깨뜨리는 분석을 통하여 호응을 이끌어 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국관개배수위원회 회원들은 세계의 빈곤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라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